




해외여행 시 말라리아 대국민 예방수칙

말라리아 예방법에는 **모기기피 및 예방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예방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모기기피제 사용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방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시기	예방법
 여행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 각 국가별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종류 및 약제내성 등이 다르므로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에 대해 숙지
 여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 (해 질녘 ~ 새벽 시간)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 • 취침 시에는 가급적 창문을 닫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며, 특히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 외출 시에는 가급적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고, 의복이나 노출된 부위에 기피제 사용
 여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예방 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위험 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길게는 4주까지 복용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적절한 복용법에 따라 복용기간을 준수 • 해외 위험지역 여행 후 모기매개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 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기 • 여행 후 최소 1개월 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

말라리아, 이것이 궁금하다!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며, 드물게는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 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권태감과 발열 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이후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두통이나 오심,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주로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 말라리아의 경우, 해외 말라리아와 달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말라리아 발생 지역(해외) 여행 또는 거주 후에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격리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환자 또는 접촉자 격리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혈 등을 통한 혈액 전파 가능성이 있어 헌혈을 금지해야 합니다.

말라리아

온전한 인식이 안전한 예방을 만듭니다

말라리아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전파되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원충종류에 따라 총 5가지의 말라리아가 존재합니다.

전파경로



종류 (잠복기)	분포
열대열말라리아 (9~14일)	주로 아열대 및 열대지방에 분포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병원성이 가장 높음
삼일열말라리아 단기(12~18일) 장기(6~12일)	열대열 말라리아보다 증상은 심하지 않으나 지리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하며, 주로 온대, 아열대지방에서 발생
사일열말라리아 (18~24일)	열대열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발생 빈도가 낮음
난형열말라리아 (12~18일)	아프리카 지역 및 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
원숭이열말라리아 (11~12일)	원숭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종으로 최근 사람에서의 감염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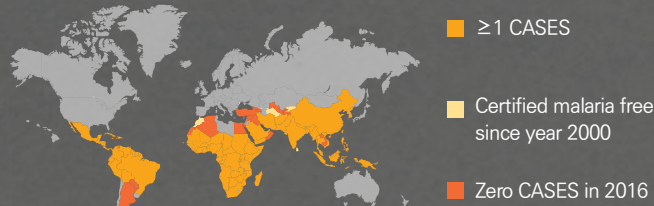
주요 증상

- 권태감과 서서히 증가하는 발열이 초기 수일간 지속
-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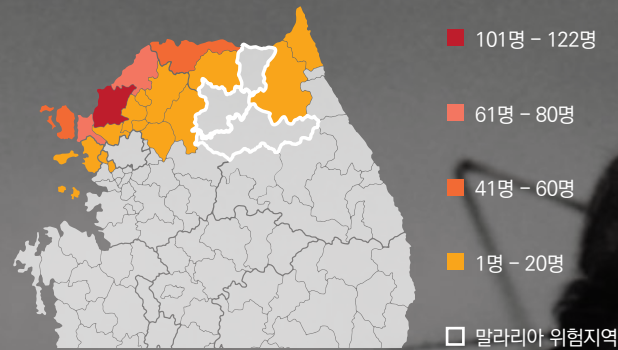
주요 임상증상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증상을 의미하며, 보다 자세한 증상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참조

말라리아 발생현황

전세계 말라리아 발생 및 위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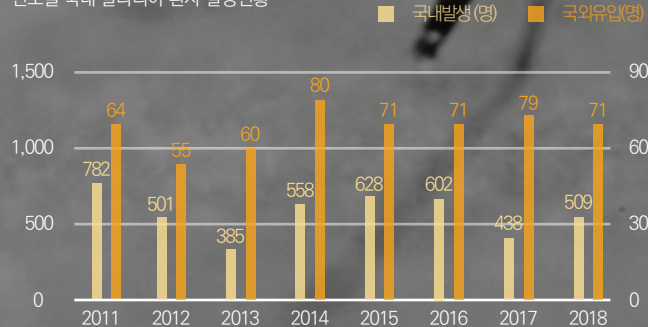
2018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2018년 1주 - 52주

한국의 말라리아 발생현황

연도별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



국내 위험지역 방문 시 말라리아 감염예방 수칙



문과 창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방충망이 없을 시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사용합니다.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저녁(해질녘)부터 새벽까지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으로 긴 소매의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합니다



기피제는 식약처에 등록된 용법용량을 준수하며 노출된 피부나 옷에 얇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말라리아 완치조사에 참여

말라리아 환자 중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혈액내에 원충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경우, 매개모기가 감염되어 새로운 환자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검사를 통해 혈액 내 원충이 사라졌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보건소와 함께 하세요!